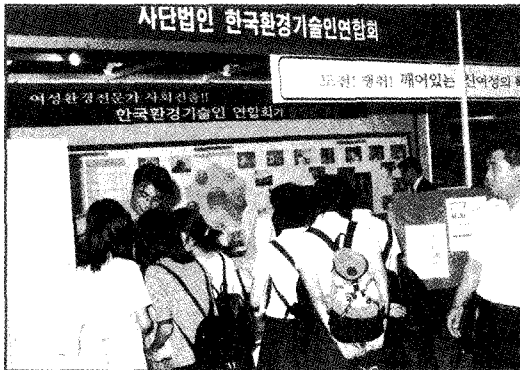


연 합 회

'2002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참가 ET분야 홍보 주관·운영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나흘동안 여의도종합전시장 제1관에서 여성부가 주최하고 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환경부 정통부 노동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02여성신직업페스티벌"에 참가, 국가정책 핵심 양성과제 중 ET분야의 홍보를 맡았다.



여성환경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본 행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여성환경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합회는 ET분야 부스를 주관·운영, 환경분야 자격증 소개, 직업현장 사진 판넬 등을 전시했다.



환경관에서는 소음 PH 응집테스트 공해공정시험 분석항목 등을 시연하고, 환경영향평가 후의 도시계획 모형물 전시, 환경관련 자격자 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전시, 분야별 여성환경전문가 근무현장 스냅사진 등을 전시해 졸업생 및 환경에 관심 있는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본 행사는 YTN, 윤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 여학생을 주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신직업 진로 박람회로 '새로운 여성, 새로운 정신'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연합회장동정

'환경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5, 7월에 이어 지난 8월 19일 과천시민회관 2층에 가진 '환경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최종회의에 참석, 환경기술인 수급현황에 대한 설문자료를 제출하는 등 환경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기술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현장친화적 교과과정 도출전략' 자문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보건대학 주관, 본교 을지관 제3회의실에서 가진 '현장친화적 교과과정 도출전략' 자문회의에 참석, 교육과정 편성과 환경전공자들의 수급방안 및 교육성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협의회

'제16회 인천환경인 및 가족 한마음 대잔치' 가져

인천협의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8월 15일 인천 송도 유원지에서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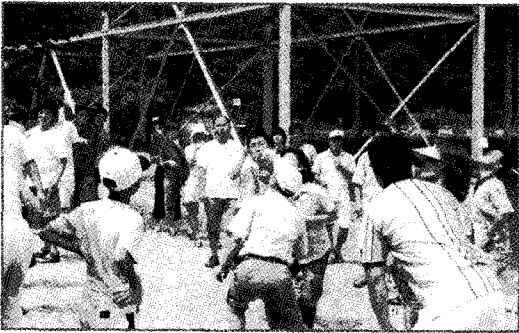


친환경인 및 가족 한마음 대잔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유원지의 넓은 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특히 가족과 회원 상호간에 호흡을 맞추는 게임이 많아서 서로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참석 회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영환 회장은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본 행사의 뜻을 되새기며, 내년의 행사를 기약하고 회원들의 한해 건강을 기원했다.



김영환 회장 인천의 환경단체와 폭넓은 교류가져

인천협의회 김영환 회장은 지난 8월 23일 박영복 인천보전협회 지회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지역사회 환경발전과 영세사업장의 기술지원에 뜻을 같이 하자고 다짐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오찬 후 김영환 회장은 앞으로 환경기술인 인천협의회는 지역환경보전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는 폭넓은 교류를 가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환경기술인의 위상과 역할도 국제화 시대에 맞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경남협의회

황수남 회장, 녹색경남 21추진협의회위원으로 위촉

경남협의회 황수남 회장은 지난 8월 14일 녹색경남 21추진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협의회는 녹색경남 21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천 사업에 대한 도민과 기업, 경상남도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계획과 평가 등을 통하여 21세기 경상남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황수남 회장은 보다 나은 미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남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환경보전의 폭넓은 일을 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녹색경남 21이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가 지구 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의제21의 28장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지방 의제 21(Local Agenda 21)은 여기에서 기원한 것으로 지방 의제 21의 경상남도 실행계획의 명칭이

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996년 7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97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총 7장의 녹색경남 21의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의제 21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남도의 장기 전략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황수남 회장, 창원시 환경관련 행정처분 청문주재

경남협의회 황수남 회장은 지난 9월 3일 창원시 청문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청문주재자로 선정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제1항 및 동법 제52조(청문)에 의해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폐쇄, 인허가 취소 등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반업소는 배출시설 설치불가지역인 완충녹지지역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대기배출시설), 운영 중 주민에 의한 민원이 다발한 업소로 본 협의회원은 업소 내에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황 회장은 밝혔다.

경기도협의회

도내 골프장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경기도협의회(회장 윤한규)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용인시 문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내 골프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환경보전과와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 남한강지대 후원하에 경기도내 골프장 환경관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전문가 특강을 통해 능력배양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도청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이종호 씨가 '골프장 환경관리 지도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강환경감시대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 강운석 남한강지대장이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서울협의회

이귀향 회장 등 대졸자 취업능력 강사로 초빙

서울협의회 이귀향 회장과 회원 (주)교학사 최관훈 과장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졸자 취업능력 향상 과정 제1기 교육(5월 12일~8월 30일) 프로그램에 환경관리 실무교육 강사로 초빙되어 환경인·허가 및 행정실무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 환경후학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귀향 회장은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한 많은 학생들이 직무수행능력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취업능력 향상 과정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환경실무자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협의회는 지방의제21,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기술지원활동,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 협의회, 도지사 면담, 책자발행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3/4분기에도 환경기술인의 입장에서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협의회

울산협의회

개정폐기물관리법 및 단속권 지자체위임 설명회 개최

정기월례회 및 바다정화활동 실시

전북협의회(회장 박진수)는 지난 9월 10일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주)에서 "개정 폐기물관리법 및 단속권 지자체위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울산협의회(회장 이종영)는 지난 8월 21일 울산 진하 해수욕장에서 정기월례회를 겸한 바다정화활동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해수욕장 주변에 널려있는 오물과 쓰레기를 600kg정도 수거 처리했다.

이번 정기 월례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울산지점 산하 환경보호협회의 환경세미나에 참석한 내용위주의 보고를 가졌다.

170여 회원사의 환경관리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수 회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환경세미나는 "월드컵 전 후로 본 울산환경"을 평가해 보는 자리로 많은 패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검찰은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된 강력한 단속이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테마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울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월드컵을 계기로 울산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 특히 악취민원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0 51건에 달했던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17건, 올 6월까지 4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대기질도 크게 개선됐는데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지난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하고 자율적 환경관리 체제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폐기물관리 업무지침서"와 "개정 폐기물관리법(8월 7일 개정)"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산업단지 단속권 지자체 위임 등에 따른 "관련기관의 조직과 업무소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북협의회는 "2002년도 하반기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3일 3/4분기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